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알럭스, 체험형 럭셔리 팝업 살롱 드 알럭스 운영 최정상 메이크업 아티스트 클래스도

2026. 3. 11.

- **1월 말부터 서울 성수동 체험형 럭셔리 팝업 운영**
- **손주희·오현정 등 최정상 메이크업 아티스트 클래스 오픈**
- **럭셔리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 제공**

2026. 03. 11. 서울 - 럭셔리 뷰티·패션 버티컬 서비스 알럭스(R.LUX)가 서울 성수동에서 오는 4월 26일까지 운영하는 체험형 럭셔리 팝업 '살롱 드 알럭스'(Salon de R.LUX)에서 다양한 뷰티 클래스를 선보인다. 쿠팡플레이 뷰티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 준우승자 손주희(손테일)를 비롯해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만큼 고객들이 수준 높은 뷰티를 경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럭스는 오는 4월까지 다양한 뷰티 브랜드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서는 뷰티 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클래스(12명 정원)는 브랜드별 일정에 따라 하루 두세 차례 운영하며, 참여는 쿠팡에서 예약할 수 있다.

11~13일 모던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 나스(NARS)가 브랜드 철학과 메이크업을 소개하는 클래스를 연다. 12일에는 '저스트 메이크업' 최종 3위에 오른 오현정(오돌체비타) 나스 시니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신제품 파운데이션을 활용한 메이크업 기법을 소개한다. 20일엔 손주희 아티스트가 '리얼 스킨 베이스'를 주제로 베이스 메이크업 노하우를 공개한다.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맥(MAC)의 전 아티스트이자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시니어 아티스트(최상위 메이크업 아티스트 직책)'로 활동한 이성욱은 27일 피부 표현과 텍스처 레이어링을 활용한 메이크업 클래스를 연다. 4월 3일엔 한국 메이크업의 '전설'로 불리는 박태윤(퍼스트맨) 아티스트가 봄 시즌 메이크업을 주제로 연단에 선다.

살롱 드 알럭스는 “럭셔리와 대화가 시작되는 공간”이라는 모토 아래 지난 1월 말부터 서울 성수동 지하 1층~지상 4층 공간으로 구성됐다. 고객들은 최정상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클래스는 물론, 럭셔리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주요 브랜드를 도슨트 설명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브랜드 갤러리’, 셀프 메이크업 체험이 가능한 ‘뷰티 아뜰리에’, 다양한 주제로 제품을 큐레이션한 ‘알럭스 부티크’ 등을 제공한다. 위스키 시음과 함께 남성 뷰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맨즈 케이브’도 마련했다. 주말에는 맞춤 헤어 스타일을 제안하는 ‘바버 케어’와 위스키 클래스도 예약 가능하다. 방문 고객 전원에게 에코백과 커피를 제공하고, 모든 체험을 완료한 고객에 한해 뷰티 제품을 증정한다. 살롱 드 알럭스 입장권은 100원(쿠팡 트래블)에 구매할 수 있다.

알럭스 관계자는 “살롱 드 알럭스를 통해 브랜드와 고객이 직접 만나 다양한 뷰티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협업을 통해 다양한 럭셔리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